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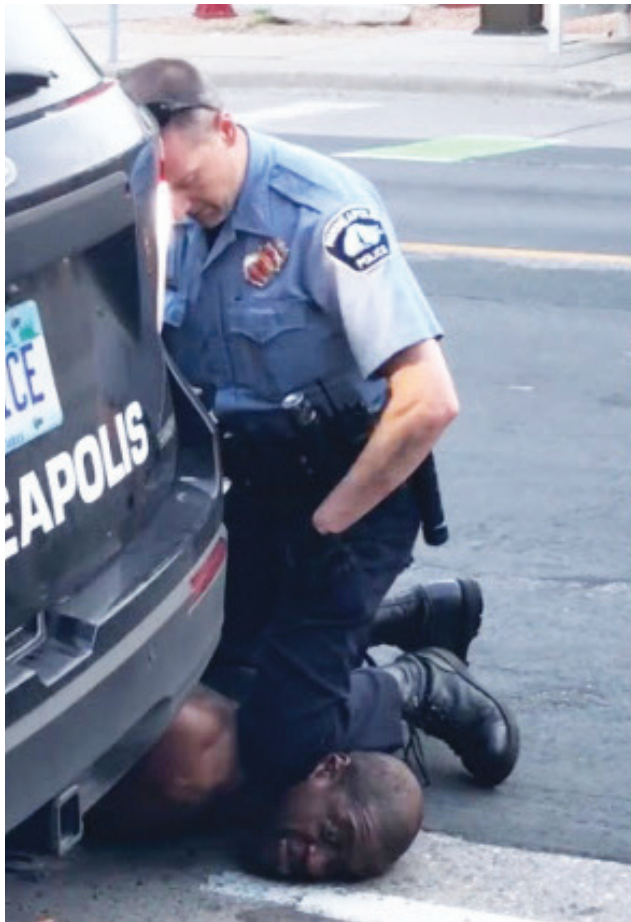
"숨 쉴 수 없다" 호소에도...美경찰은 꿈쩍 않고 흑인 목을 밟았다

백인 경찰 아래 깔린 흑인 남성의 입에서 끊임없이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하지만 남성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며 제지에 나서도 마찬가지다. 주위의 경찰들은 행인들의 접근을 막을 뿐이다. 그리고 이날 밤 고통을 호소하던 남성은 사망했다.

행인들 말했지만 경찰은 꿈쩍도 안해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가혹 행위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은 고스란히 녹화돼 인터넷을 통해 퍼졌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 네명은 해고됐고,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사법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미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오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위조 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일어났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피해 남성은 "제발,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며 간청하면서 "배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 제발, 숨을 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 여성이 경찰을 향해 "당신은 지금 그의 숨을 끊고 있다. 코에서는 코피가 난다. 코를 봐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남성의 호소가 끊어지자 행인들이 몰려들어 경찰들에게 맥박을



체크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목을 누른 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피해 남성을 들것에 실을 때까지 8분간 일어나지 않았다. 현장을 촬영했던 행인 중 한 명인 다르닐라 프레이저씨는 NBC뉴스에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남성은 죽은 것처럼 보

였다"고 말했다. 찰스 맥밀런 씨는 AP뉴스에 "목이 눌러 있던 남성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숨졌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라고 부르는 건 모욕" 영상이 퍼지고 피해 남성

이 사망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FBI와 미네소타주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시장은 사과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것이 사형선고가 돼서는 안 된다"며 "5분 동안 백인 경찰이 그의 목을 누르는 것을 우리는 봤다. 5분 동안이다"라며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으면 도와줘야 한다. 이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못 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프레이 시장은 또 "의료사고라고 밝힌 경찰의 최초 발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른다"면서 "완전히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용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

▲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

했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로 용의자가 숨졌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조지 플로이드 측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측 벤 크럼프 변호사는 "우리 모두는 플로이드의 끔찍한 죽음을 비디오프로 지켜봤다"며 "폭력적이고, 과도하며 비인간적인 무력 사용으로 그가 숨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자유시민연맹(ALCU)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ACLU 측은 "이 비극적인 비

디오는 경찰에게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사건을 의료사고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했다.

강아지 목줄 채우랬더니 경찰 신고한 백인 여성, 직장서 해고

한 백인 여성이 산책 중인 강아지 목줄을 채워달라는 흑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국 직장을 잃는 신세가 됐다.

크리스찬 쿠퍼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여성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연쟁을 벌인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이 여성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고 목줄을 채워줄 것을 요청했다. 공원 내에서 산책할 때는 목줄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를 거부했다.

쿠퍼씨는 목줄을 채우지 않을 거면 공원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성은 공원밖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차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쿠퍼씨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당신이 좋아할만한 일은 아닐 거다"라고 하며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이 여성은 "내 강아지에 손대지마"라고 소리를 치고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3 페이지에서 계속)



▲ 26일(현지 시각) 조지 플로이드씨가 사망한 장소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흑인을 죽이는 걸 그만하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 BBQ 레스토랑



**중화요리
개시!!**

짜장면

~~\$10.99~~ **\$7.99**

Regular 시니어(65+) 디스카운트

*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디너 올유캔잇 주문시
전체 Bill에서 추가 10% 할인

All You Can Eat Shrimps Promotion

(Dinner 올유캔잇 주문시)

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34.00 -> 29.89/person 해피 아워 가격 적용



Korean BBQ

All You Can Eat

Tel: (403) 243-7970

<https://www.instagram.com/seoulbbqcalgary/>



4336 Macleod Trail S.W. Calgary, AB